

에파타 - 열려라

'에파타'란 '열려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람말이다. 마르코 복음 7장 34절과 35절에는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한숨을 쉬시며 그에게(귀먹은 반병어리) '에파타' 즉 '열려라'고 하셨다 그러자 (즉시)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굳은 혀도 풀렸다. 그래서 그는 제대로 말하였다”라고 기록돼 있다.

즉, 에파타는 일종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손가락을 넣고 침을 바르며 하늘을 쳐다보고 숨을 내쉬는 것은 당대 유대계 및 이방계 이적사회에 흔히 나오는 치유 행동이다. 침은 물, 피, 술, 기름과 더불어 액체약품에 속한다.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얻으려는 것이요, 한숨을 쉬는 것은 그 기운으로 병마를 물리치려는 것이다.

이 같은 치유행위에 대해 구약성서에는 의술에 의존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단 의술자체 까지도 변질시키는 우상숭배적 성격이 짙은 마술행위는 금했다. 또한 치유는 하느님께서 인류의 아픔을 덜어주시기 위해 얼굴을 그들에게 돌리셨음을 알려주는 표지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했다.

신약성서에서 병은 죄인이 처해있는 상태를 상징하고, 예수는 죄인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다. 결국 치유자 예수는 인류의 죄악을 제거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고통에 시달리는 인류의 운명에 동참하신 것이다.

